

# AI 기초·초거대 모델... 'AI 융합 아카데미' 연다

AI사업단, 12월까지 상시 운영  
AI 커리어맵 기반 커리큘럼 구성  
초보~전문가 맞춤형 교육 제공  
"AI 생태계 핵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 사업단)이 AI 전문가 양성과 AI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융합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11일 AI 사업단에 따르면 'AI 융합 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사업단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AI 기업의

수요 맞춤형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해

AI 융합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온·오프라인 AI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AI 융합 아카데미' 교육은 AI 커리어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직무별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입문 5강, AI 기초 8강, 세미나 1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AI 빅데이터 분석 입문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코딩 입문 △AI 자연어처리 기초 △AI 모델링과 컴퓨터 비전 기초 △A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초거대 AI 모델 세미나 등 총 1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AI 커리어맵'은 AI 사업단이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술 △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인프라 △AI 비즈니스 개발 등 5개 직무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술 융합 엔지니어링 △AI 비즈니스 기획 등 12개 직군으로 구성된 수준별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문 교육 커리큘럼이다.

'AI 융합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AI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진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생들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전 예제와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 융합 아카데미 교육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상시 모집하며, AI 융합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portal.atops.or.kr/l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은 "광주 AI 산업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준 맞춤형 AI 교육을 진행한다"며 "AI 분야의 전문가 양성은 물론, 기업과 개인의 AI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분양

총 3개 단지 3214가구 규모  
15일부터 특별공급 등 분양

GS건설은 지난 5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성황리에 분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2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

활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가 사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 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해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입주 편의시설 또한 주목된다. 단지 전체 동 기반부 4개 층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고, 단지 일부에는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및 침실 등에 조망형 유리 난간을 적용한다.

단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돼 있다.

청약은 광주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주택형(59㎡, 75㎡, 84㎡)에 청약 가능하다.

분양은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23일 △3단지 24일 △1단지 25일이고,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북구 경영로 250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냉감 침구 미리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8층 '세사' 매장에서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시원한 잠자리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냉감시트 사전예약 판매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세사의 아이스 쿨링시트는 열전도성이 높은 냉감소재를 사용해 열에너지를 빠르게 흡수 분산하는 방식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선사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롯데백화점과 세사가 공동기획하는 다양한 종류와 사이즈의 아이스쿨링 제품을 사전예약 판매한다. 또 구매금액대별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건협, 광주지역 주민 위한 건강 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쌍학어린이 공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일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치매 검사, 혈당당뇨, 뇌파맥파, 스트레스, 알콜중독 등을 상담하고 건강체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병원에 자주 못 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건협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캠페인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건강정보제공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 광주경총 이사회 개최... 방주희 부회장 선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제80회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이디어플랫폼 방주희 대표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전남 나주 해피니스컨트리 클럽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올해 신규로 확보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굿잡 매칭 프로젝트 사업을 보고하고 임원 선임, 특별회계 예산 변경, 신입

회원 가입, 회비부과 기준 변경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광주경총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임된 ㈜아이디어플랫폼 방주희 대표는 제조업 기반의 인큐베이팅 전문 디자인, 제조, 마케팅, 유통 허브시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액셀러레이팅 회사다.

또 신규 사업인 산업현장맞춤형 굿잡

매칭프로젝트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회원가입을 신청한 11개사의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양진석 회장은 "신규사업 승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50인 미만 회원사에게 무료로 컨설팅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광주경총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재테크 칼럼

### 급상승 종목 투자 과감하게 도전하자

주식투자자의 궁극의 목적은 독점 기업 찾아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 다양한 주식시장에서 가끔씩 독점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하곤 하는데 최근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좋은 예다.

엔비디아는 원래 GPU라는 그래픽과 게임에 특화된 칩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마이크로 소프트가 챗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빅테크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생사를 걸고 인공지능 시장에 속도전을 전개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에 가장 효율적인 칩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의 반도체칩이 날개 달린 듯이 팔려 나가고 본의 아니게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됐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200달러 선에서 현재 900달러로 4배 이상 폭등했다. 엔비디아의 독점은 당연히 엔비디아 협력업체들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대만 TSMC

가 의외받은 물량이 밀려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칩에 합당한 HBM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독점공급함으로써 1년여만에 약 9만원이던 주가가 18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장비공급체인 한미반도체는 세계에서 유일한 TC반도체장비를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함으로써 1년여만에 10배가 폭등했다. 과거로 돌아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가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에 올인한 후 힘겹게 기업을 이어오다가 수년 전 전기차 붐이 일어나면서 20배 정도 폭등한 바 있다.

우연이든 노력이든 독점 기업이 되면 주가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보를 거듭하던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2배 정도 오르면 비싸다는 생각에 머뭇거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반대로 떨어지면 급상승에 대한 반박으로 생각 되서 또다시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급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미리 실적 상승 종목을 발견해서 매복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으나 계속 횡보하거나 하락해 버리면 매복하다 스스로 지치는 경우도 많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을 투자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에 의해서 수요는 늘 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다. 투자자는 그 시간을 먹어야 한다. 될수록 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한 시간을..